

# 6G



TTA 저널에서 5G 특집을 기획했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6G 특집을 기획하게 되었으니 정말 시간은 유수하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에 동감하게 되면서도, 5G 작업까지는 우리가 맡아서 하되, 6G 부터는 유능한 후배들이 넘겨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후배를 미리미리 키워야겠다는 다짐을 아직 실천을 못 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이동통신 산업계에선 불문율처럼 이어져 오는 말이 있는데, 홀수 세대 기술로 길을 닦으면 짝수 세대 기술에서 꽃을 피운다는 것이다. 실제로 1세대 AMPS, 3세대 WCDMA가 새로운 기술의 방향을 제시했다면 2세대 GSM, 4세대 LTE에서 사업적으로 이동통신 산업을 만개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 5G는 모바일 기술을 전통 산업에 적

용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작업이 성공하면 향후 몇 년 내에 모바일 서비스 시장에 버금가는 크기의 새로운 시장이 전통 산업에서 5G에 의해 창출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에너지, 제조, 의료, 교통 등 전통 산업 자체도 혁신의 날개를 달게 되고, 모바일 산업도 새로운 응용 영역을 개척하는 윈-윈 구도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아마도 이런 노력은 모바일 기술이 사회 전반에 스며드는 6G 시대가 도래하면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지금 6G를 언급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겨우 5G 상용화를 시작했는데 벌써 6G냐고 쓴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과거



4G, 5G 경험을 보더라도 결코 지금 단계에서 6G를 준비하는 것이 이른 시점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 우리나라 산업계가 3G 표준 때는 뒤에서 배우면서 따라갔고, 4G 표준 때는 주요 멤버의 하나로 열심히 참여했다면, 5G는 우리가 끌고 나가면서 표준화를 주도했다. 다만 아쉬운 것은 5G 사업화 단계에서는 5G 표준에서 만큼의 영향력을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과정은 잘 분석해서 6G에서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

6G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전통적 강자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맞서서, 권토중래를 도모하는 일본, 새롭게 발을 들여놓으려는 인도의

진입 등 과거에 비해 훨씬 복잡한 국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적절한 파트너를 찾아서 윈-윈할 수 있는 구도를 다져나가는 현명한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아직은 6G 초기 준비 단계라서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필에 기여해 주신 산학연 전문가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TTA

